

#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22, 히스기야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히스기야와 함께 우리는 역대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별이 빛나는 또 다른 시대로 이동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에게 네 장의 긴 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매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또한 히스기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긴 네 장 중 단 한 장만이 우리가 열왕기와 이사야에서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서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는 주로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스가 앗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으나 앗수르가 그와 동맹을 맺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유다를 점령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정확히 701년 히스기야 통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의 세부사항과 앗시리아 기록의 세부사항으로 인해 우리 달력으로 매우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날짜 중 하나입니다. 일식과 월식 계산을 사용하여 우리는 8세기 말의 날짜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왕이고 저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열왕기는 특히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강조하며, 물론 이사야도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성의 미래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있는 길의 예로 사용합니다. 역대기 기자에게 히스기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솔로몬 시대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역대기에서 히스기야를 두 번째 솔로몬의 모형으로 언급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그에 수반되는 다른 절기들의 회복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상세한 설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 왕이 연대기 작가에게 그토록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바알과 단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두드러집니다. 그 성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계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독립적인 통치가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유롭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개요로 돌아가서, 이것은 역대하의 두 번째 주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였고 그 다음은 그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연대기 기자가 치유라고 부르는 일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통해 치유가 오는 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제시한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요약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통치하자마자 성전을 회복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정결케 되기 시작하고 성소가 회복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이야기에 더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서 그것이 더 두드러진 이야기이고 율법서가 성전에서 발견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 회복과 이것은 또한 열왕기에서 매우 분명하며 실제로 히스기야에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요시야는 이것을 시작한 최초의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회복과 성전의 재헌납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물론 희생 제물과도 연관됩니다. 이제 제물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물론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복원한 모든 음악가와 모든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이 장은 히스기야가 중요한 한 가지 일에 헌신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의 보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다의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말해주는 상징성과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당시 첫 번째 야망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유월절을 놀랍게 묘사한 것입니다. 성전이 복원되면 다음 단계는 성전과 함께하는 축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세 가지 주요 순례 축제가 있는데, 노파 또는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온 모든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고 있는 유월절은 순례의 축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양 전체를 먹는 각 가정에서 희생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발전해서 큰 축제이고 연초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지가 되고 당연히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온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될 말장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shul에 있습니다. 반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의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단순히 돌이킨다는 보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 이야기에서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첫째, 그는 그들이 회개의 의미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왕국이 시작된 이래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오라'고 하니, 이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유월절에 오라.

유월절을 기념합시다. 이것이 메신저의 매력입니다. 이제 이러한 호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규정대로 유월절 양을 드리려고 준비한 사람이 부족하니라. 그리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만큼 주변에 사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주어진 절차를 실제로 위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인정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때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모든 절차를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고 당신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찾았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이켜 고침을 받으셨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유월절 경험을 사용하여 기브온의 환상에서 솔로몬이 그에게 임한 기도가 인식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돌이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쳐 주리라. 따라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두 번째 솔로몬이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상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솔로몬 자신이 준 이 규정을 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규정을 뛰어넘어 그 기간이 다 차기까지 유월절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 왕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유다로 인도하여 그들의 뿌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월절에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은 구원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었나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곧 장자를 죽이는 애굽인들을 심판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양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선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명하셨다. 유월절은 항상 너희가 지키는 표징이요, 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니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빵을 들고 포도주를 드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본질적으로 지금이 당신의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양이다.

이 빵을 먹으면 내 몸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새 언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시작하신 속죄를 너희에게 가져오는 자가 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시작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북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역동적인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적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대행사인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래의 백성, 고백의 백성,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확인된 백성이다.

그러한 이유로, 연대기 기자에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전환점이 됩니다.